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9

유인들을 구한 에스더

(에스더 4:11~10:3)

고민에 빠진 에스더 왕비.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가엾은 유대인들과
사촌오빠 모르드개를 생각하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 부딪쳐보기로 했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성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에도 왕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때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제가 먼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고
에스더는 결연한 표정으로 왕을 찾아갔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이에요.

“엄? 왕비!! 어찌 나를 먼저 찾아오시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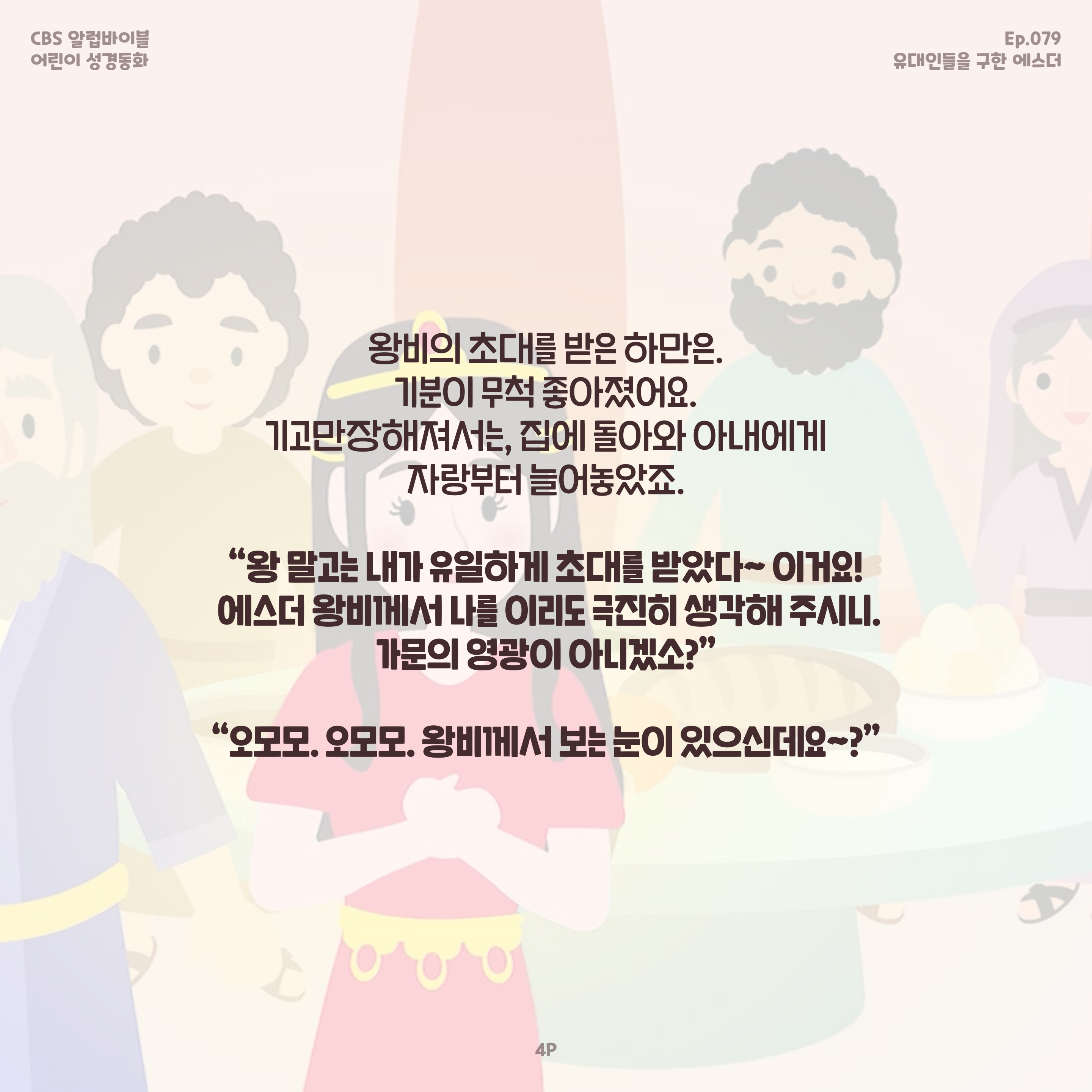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은 왕실의 법도 잊은 채
에스더를 반겨주었어요.

“폐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말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히히히.”**

**“제가 내일 폐하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관참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 주시겠습니까?”**

**“헤헤 그쯤이야. 물론이지요 왕비!
여보라, 당장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비의 초대를 받은 하만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기고만장해져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부터 늘어놓았죠.

“왕 말고는 내가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다~ 이거요!
에스더 왕비께서 나를 이리도 극진히 생각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소?”

“오모모. 오모모. 왕비께서 보는 눈이 있으신데요~?”

**“암 그렇고말고.
그런데 말이야... 집에 오는 길에
이 좋은 기분을 망친 자가 있소.
그 모르드개라는 녀석이 아까도 나를 보고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에잉...”**

**“에이 여보. 고작 그 정도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러세요~
정 그러시면 지금 당장 왕께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건방진 모르드개를 커다란 장대에 매달아
벌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하만은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20m 정도 높이의
커다란 장대를 만들어두게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왕을 찾아갔죠.

그날 밤. 아하수어로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왕궁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책을 옆에서 읽게 했죠.

그 일지에는, 과거 모르드개가 왕을 죽이려 한
두 사람을 고발한 일이 기록돼 있었어요.

**“아, 그런 자들이 있었지 참.
그럼 그 때 모르드개에게는 어떤 상을 내렸는고?”**

**“그때 별다른 명령이 없으시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디다요.”**

**“뭐라구? 내 목숨을 구한자인데 그래서야 쓰겠느냐.
여보라,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왕실 앞뜰에 도착해 있었어요.

“폐하, 여기 충신 하만이 있습니다. 사키실 일이 있으신지요?”

**“오. 하만. 마침 잘 왔구만.
이보게. 내가 크게 높이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자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그 말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필필필. 왕이 높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왕께서 또 나한테 선물을 주시려나 보구만. 필필필.’**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훌륭한 자가 있다면 그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왕의 믿을만한 신하를 시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안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 앞에서 그자를
칭송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명령을 내렸죠.

**“좋다. 그럼 자네는 모르드개라는 자를 데려다가
자네가 방금 말한 대로 똑같이 대접해주게.
그리고 자네가 직접 모르드개의 말을 끌고 성안을 돌아다녀 주게나.
부탁하겠네.”**

**예상치 못한 왕의 명령에. 모르드개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땀이 흘렀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 순 없었죠.**

**그렇게 하만은 직접 모르드개를 태운 말을 끌고
직접 외쳐야만 했습니다!**

**“왕께서는 높이주고 싶은 자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신다! 모두 본받거라...!!”**

다음 날, 에스더는 예정대로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 하만은
어제의 일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죠.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오늘 아주 즐겁게 먹고 놀았소.
그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뭐든지 들어주리다.”**

그러자 에스더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그러시다면 저의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왕비의 생명을 구해달라니 누가 왕비를
해치려는 자라도 있단 말ियो?”**

**“그렇습니다, 폐하.
그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땅에 있는 제 민족들을
무참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가요!**

**“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하지만 아하수어로 왕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네 녀석이 왕비와 왕비의 민족들을
해하려 하였구나!
여보라, 저자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어요.

“폐하, 들기로는 하만의 집에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다 합니다.”

“그래~? 그럼 이 죄인 녀석을 거기 매달아두면 되겠구나.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하만은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제야 분이 풀린 아하수어로 왕은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죠.
모르드개는 높은 직위에 올랐고 에스더도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을 구한 에스더 왕비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날을 기억하며
에스더 왕비의 용기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